

#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 신청

### 도내 공·사립 중학교 대상... 내달 6일까지 1인당 1일 3000원씩 연간 총 190일까지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 참여 학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직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도내 공·사립 중학교로, 학생 1인당 1일 3000원씩 연간 총 190일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특히 간편식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범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중학교는 참여 신청서와 사업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 오는 9월 6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침결식이 많은 학교 아침간편식 제공 장소 등의 운영 기반이 갖춰져 있는 학교, 사업담당자 및 구성원의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학교 등을 중심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8일 청조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하반기 신규 조리실무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 도교육청, 하반기 신규 조리실무사 직무연수

### 공립 초·중 배치 120명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청조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하반기 신규 조리실무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수 대상자는 오는 9월 1일자로 공립 초·중학교에 배치된 신규 조리실무사 120명이다.

이는 그동안 조리실무사들이 사전연수 없이 학교 현장에 배치된 후 곧바로 급식업무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정책의 이해 △조리실무사로서의 기본 소양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단체급식 조리 기본 등 4개 교과목을 총 4시간으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전북 학교급식 정책의 이해를 위한 강의와 함께 학교급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위생관리(조리과정의 HACCP 관리)와, 단체급식 조리 기초에 대한 연수를 통해 조리실무사로서의 기본역량과 직업의식을 키우고자 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조리실무사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추가해 동료는 물론, 교사와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연수는 신규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현장에 첫발을 내딛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준비했다"면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연수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설명회

### 도교육청, 도내 학교 교감 대상... 준비사항 안내

### 내달 11~12일 각급학교 교복 담당자 대상 업무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도내 77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개요 및 보급 일정, 관리 지침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며 학교에서의 스마트기기 활용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스마트기기는 오는 9월 11일 웨일북 수업용(교원) 기기 1,104대를 시작으로 2023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온라인 공동교육 회원학교 등에 1순위로 보급된다.

이후 나머지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순차적으로 보급해 오는 11월까지 초·중·고 6 및 수업교사 중·고·2학년들에게 총 6만 4,066대를 지급할 예정이다.

민완성 미래인재과장은 "2025년부터 수학과 영어, 정보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도 도입되는 만큼 스마트기기 보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앞으로 에듀테크 활용 우수 수업사례를 적극 발굴해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을 함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9월 11~12일 각급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은 지난 25일 장애이동가족 대상 우주과학 이벤트 2023 가족과 함께 별을 만나다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 '가족과 함께 별을 만나다'

### 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우주과학 이벤트 운영 10월 27일 도민 대상 가을철 천체 관측 활동 진행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원장 김정옥)은 지난 25일 장애이동가족 대상 우주과학 이벤트 2023 가족과 함께 별을 만나다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사랑 나눔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장애 아동 가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 공연이 있는 우주과학 이벤트를 제공했다.

1부는 사이언스홀에서 익산브립공

물단의 사지춤 등 흥겨운 타악퍼포먼스 공연이 진행됐다. 2부는 천체 관측관의 주관측실에서 304mm 대형굴절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찾아보고, 보조관측실에서는 달, 토성, 배가(적녀), 알비레오, 옷걸이성단 등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천체투영관에서 달 탐험, 태양계 행성 여행 등 우주의 신비에 대한 영상을 관람하고, 천문교육마당에서는 가족끼리 힘을 모아 야광 회전 별

자리판과 여름철 별자리 만들기를 하면서 우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한편 과학교육원은 오는 10월 27일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함정단 공연이 있는 가을철 천체 관측 활동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과학교육원 누리집(https://office.jeduk.or.kr)' 전문 관측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정옥 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대상 가족과 함께 문화체험이 있는 천체 관측 활동의 특별한 추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선정

### 전북대 임민우 대학원생, 고차원 나노구조 제어 통한

### 이방성 고이온 전도성 액정고분자 필름 개발 연구 수행

전북대학교 임민우 대학원생(나노융합공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정광운)이 2023년도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임민우 대학원생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간 2천만 원의 박사과정생 연구지원 장려금을 2년 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박사과정생(석·박사과정생 및 수료생 포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다.

이번 선정으로 임민우 대학원생은 '고차원 나노구조 제어를 통한 이방성 고이온 전도성 액정고분자 필름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이 연구는 양/음 이온을 갖는 새로

운 액정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고차원의 이온전도성 액정고분자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액정물질의 낮은 안정성과 이온 전도도 문제들을 개선해 여러 에너지 소자에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민우 대학원생은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를 통해 연구에 더 매진해 수준 높은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민우 대학원생은 지금까지 ACS Nano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를 포함해 제 저자로서 5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내외 학회에서 2건의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산학공동기술

### 개발과제 성과관리 토론회

전주비전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단(LINC 3.0)은 28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성과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는 지역산업체의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전주비전대학교가 보유한 ICC 특화분야의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및 시제품 등 다양한 산학협력 결과물을 창출해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5월 엄격한 외부심사과정을 통해 9개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선정, 총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9개 과제의 책임교수 외 참여기업 대표자들이 참석,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사업비 집행요령과 사업성과의 관리, 사업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안, 제작자 교육과 기업연계 캠퍼스디자인으로의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1~28일 '2023년 하반기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전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전주대, 올 하반기 EPIK 사전연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1~28일 '2023년 하반기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전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에서 주관하는 EPIK 사업은 원어민 교수 인력을 확보, 초·중등 영어 공교육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신규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4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3년 EPIK 사전연수는 22일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8일까지 한국 학생과 학교 환경 등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사의 역할 인식 및 자긍심 제

고를 위한 한국 영어교육 과정의 이해 및 교수법 신장, 한국 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EPIK Direct, 영어교수법 강의, 윈데이 클래스(태권도, 미니올림픽, 한국민요, K-POP댄스, 캘리그래피, K-공예, 한국민속춤, K-Food), Field Trip(한지공예/전주한옥마을), 수업시연, 클래스티칭 등이 있다.

박진배 총장은 수료식을 통해 "EPIK 연수에서 배웠던 교수법을 기초로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더욱 성장할 EPIK 교사들이 되길 기대하며, 앞날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인성교육 자체 평가

### 표집된 30개교 대상 설문조사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인성교육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체평가는 표집된 30개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인성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차기년도 인성교육 방향 모색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표집 선정된 3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해야 할 인성 핵심 가치 등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됐다.

또한 독서교육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도 동시에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024학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실력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자체평가를 통해 더욱 내실있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교대, 교육공무원 인사 단행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8일 본부동 총장실에서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는 전임교원 신규임용 1명, 전임교원 정년퇴직 1명, 조교 신규임용 1명 등이다.

특히 전주부설초등학교에 민환성 교장, 군산부설초등학교에서는 김신철 교장의 전임 인사가 있었으며, 조교 3명이 제임용됐다.

박병춘 총장은 "우리 학교에서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많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퇴직교수에게는 "지금까지 우리 대학을 위해 힘써 준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대의 교육공무원 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임교원 신규임용 ▲사회교육과 부교수 이소연
- ◇정년퇴직 ▲명예교수 ▲미술교육과 교수 서유미
- ◇초등교원 전임 ▲전주부설초등학교 교장 민환성 ▲군산부설초등학교 교장 김신철
- ◇조교 신규임용 ▲과학교육과 정선훈
- ◇조교 제임용 ▲유리교육과 김진휘 ▲국어교육과 정삼희 ▲음악교육과 정은영

## 전주교대 군산부설초 리더십 역량 강화 캠프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원규)는 지난 25~28일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학교 어린이회 및 방송·신문기자단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진정한 리더십을 기르고,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회와 언론부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리더십 캠프에 임했다.

캠프 첫째 날에는 종이 롤러코스터 프로그램과 장기자랑을 진행하며 공동체 역량을 기르고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은 박정희 대통령의 기적 같은 삶, 우리의 미래 라는 특강을 들었다.

/정은성 기자